

## 한우

### ‘한류의 힘! 한우’ 프로젝트 시동 한우자조금, 명동난타극장서 외국인 대상 한우 알리기 나서



한우가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위상을 갖 추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12월 1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한우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한우 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한류의 힘! 한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류의 힘! 한우!’ 프로젝트는 그동안 한우가 외국 산 소고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에 주안, 한

우의 우수성과 뛰어난 맛을 알려 한우를 통한 또 하나의 한류붐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우자조금은 지난 연말까지 명동에 위치한 명동난타전용관에서 한우 시식행사를 비롯 난타공연과 함께하는 한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난타공연은 명동난타전용관에서만 하루 1,000여명의 외국인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외국인 공연관람 선호도 1위 공연이다. 이 공연 중 한우요리가 등장, 자연스럽게 외국인관광객에게 한우를 소개했으며, 공연장 내에 한우자조금 부스를 설치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우 불고기 시식, 한우육포 증정, 한우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한우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난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올해부터는 본 프로젝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한류전문 여행업체 및 한우마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전용 한우체험 관광코스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서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은 “한우는 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올레인산이 다른 소고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우가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한우의 수출과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우 전문식당 200여 곳의 관광정보를 수록한 리플릿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 배포했다. 횡성한우 축제를 비롯한 유명 한우축제 10곳과 가볼만한 한우마을 12곳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된 한우 맛지도가 포함되어 외국인이 한우 체험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2. 12. 13

## 한돈

### 한돈협회 함양군지부, 한돈 나눔행사 가져

한돈협회 함양군지부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국산돼지고기를 함양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한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행사는 연말을 맞아해 소외 계층에 훈훈한 정을 나누고 ‘한돈’ 홍보를 통해 사료값 인상 및 돼지값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고, 국산돼지고기에 대한 범국민 소비 촉진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기석 한돈협회 함양군지부장은 “돼지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정이 전달 됐으며 한다.”며 “질 좋고 맛있는 국산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탁된 국산돼지고기 850kg(250만원 상당)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되었다.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2012. 12. 17



## 양계

### 합천양계협회 이웃돕기 달걀 등 전달

대한양계협회 합천지부(나태명)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합천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닭 750마리와 달걀 30개들이 100판을 전달했다. 나태명 회장은 “매년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의견을 모아 회원 모두가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창환 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된 물품은 관내 복지시설 등에 회원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 충북을 끝으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성료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12월 10일(월) 충북지역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칩표를 찍었다. 이날까지 9개 지역에서 1,500여 명의 지역 낙농가들이 참석하여, 전국 낙농가 4명 중 1명이 참석할 정도로 전국 낙농가의 반응은 뜨거웠다.

충북지역 역시, 육우송아지값 폭락 문제가 최대 화두로 제기되었으며 FTA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협동조합 중심 집유일원화 추진, 집유조합 치즈공장 활성화, 진흥회농가 기준량 인수도시 귀속물량 폐지, 면세유 공급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금번 순회 토론회는 예년과 달리 환경규제에 대응한 낙농분뇨 자원화방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뇨 전문가들로부터 분뇨정책 추진동향, 가축분뇨의 특성과 가치, 목장별 분뇨처리방안, 착유세정수 적정 처리 등 쟁점분뇨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듣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별로 많은 낙농가들이 참석하여 육우송아지 거래실종 및 가격폭락 대책,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 조사료 가격 및 수급대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공쿼터 문제, 현실적인 FTA 피해보전대책, 무허가축사 문제, 축산 가설건축물(비가림시설) 기준 현실화, 건폐율 상향, 실질적인 분뇨처리대책,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개선(증축허용 등),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 면세유 공급 개선, 구제역 백신 부작용 피해 등 낙농현안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들이 쏟아졌다.

행사를 마친 이승호 회장은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농가의견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2013년도 협회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회원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회활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금번 순회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낙농가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농가의견을 바탕으로, 12월 13, 14일 양일간 대전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낙농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낙농육우 지도자들의 해안을 다시금 모았다.



## 전주 벌꿀 저온 농축장 건립... 고품질 꿀 생산 가능

전주지역에 벌꿀 저온 농축장이 건립되면서 저품질 꿀 출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1일 전주시는 덕진구 전미동에 총면적 490㎡ 저온 농축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품질 꿀 생산에 돌입했다.

전주와 완주 지역에는 290여 양봉농가들의 벌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꿀 저온 농축장이 없어 농축하기 전 미생물 번식이 쉬운 수분함량이 높은 상대로 거래,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저품질 꿀 출하로 이어져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벌꿀 농축 처리장 건립으로 전주와 완주 인근 양봉농가들이 손쉽게 농축 처리시설을 이용, 물류비용 부담해소와 적정 수분함량처리와 향미·효소의 손실이 없는 고품질 꿀 생산이 가능해졌다.

고품질 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kg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에 거래됐으나 앞으로 kg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에 출하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한국양봉협회에서 검사하는 항목 12종 농약 및 잔류물질 18종이 불검출 판정된 벌꿀에 한해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 지역 벌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하진 시장은 "벌꿀 농축장 건립은 전주뿐만 아니라 완주 등 인근 지역의 양봉산업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기능성 양봉산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유영수 기자 2012. 12. 21

## 양록

### 김춘진, 양록산업 정책토론회

국회 김춘진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제2차 양록산업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종호 대표(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는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에 대한 방역관리가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원산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살처분보상액 감액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병호 박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는 “우리나라 양록산업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사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 양록산업의 산업화 세계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녹용 세계 최대 소비지인 국가답게 조속히 사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슴 살처분금액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양록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2012. 12. 20